

물에 비친 샹보르 성

9박 10일 · 랭스에서 베르사유까지

십자가와 왕관

하느님의 은총으로 축성된
프랑스 왕들의 발자취를 따라

랭스 · 파리 · 생드니 · 뱅센 · 오를레앙 · 앙부아즈 · 샹보르 · 퐁텐블로 · 베르사유

당신의 여행

왕들이 하느님께 왕관을 받던 시대

프랑스 왕정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랭스에서 레미지오 주교가 베푼 **클로비스의 세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천 년 넘게 프랑스의 왕들은 단순히 왕관을 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 왕들처럼 거룩한 기름으로 **도유(塗油)**를 받은 것입니다. 왕의 문서는 늘 **"하느님의 은총으로 프랑스의 왕"**이라는 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왕좌와 제대**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수호하던 중세의 왕에서, 예술을 후원하고 성을 지은 르네상스의 왕을 거쳐, 베르사유의 **왕권신수 군주**에 이르기까지.

방문하는 모든 건축물이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비춥니다. **개인의 신앙**과 거룩한 예식, 그리고 종교의 정치적 쓰임 사이에서.

도유 받은 왕
1 – 4일차

되찾은 왕관
5 – 7일차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스린 왕
8 – 10일차



아홉 군주, 왕관의 천 년

"하느님의 은총으로 프랑스의 왕." 클로비스부터 샤를 10세까지, 모든 왕은 왕관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았고, 저마다 이번 여정의 한 장소에 자취를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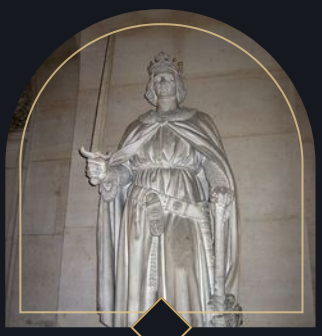
클로비스의 세례, 생질의 거장, 1500년경

클로비스

466년경 – 511

500년경 성 레미지오에게 세례를 받아, 랭스를 축성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2일차 · 랭스



필리프 2세 존엄왕 조각상

필리프 2세 존엄왕

1165 – 1223

1179년 랭스에서 축성되었고, 루브르 요새를 세웠습니다.

3일차 · 루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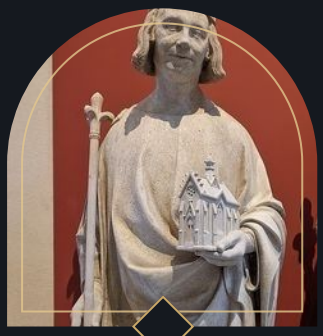
성왕 루이, 엘 그레코, 1590년경

성왕 루이

1214 – 1270

성인품에 오른 왕으로, 가시관을 모시려 생트샤펠을 지었습니다.

3일차 · 생트샤펠



샤를 5세 조각상, 루브르

샤를 5세

1338 – 1380

'현명왕'이라 불린 그는 뱅센을 완성하고 그곳에 생트샤펠을 세웠습니다.

4일차 · 뱅센



샤를 7세, 장 푸케 원작

샤를 7세

1403 – 1461

하느님께서 보내셨다는 잔 다르크가 그를 축성식으로 이끌었습니다.

5일차 · 오를레앙



샤를 8세의 초상 메달

샤를 8세

1470 – 1498

앙부아즈에서 나고 숨진 그는 르네상스를 프랑스에 들여왔습니다.

6일차 · 앙부아즈



프랑수아 1세, 장 클루에, 1530년경

프랑수아 1세

1494 – 1547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후원자로, 샹보르를 짓고 퐁텐블로를 꾸몄습니다.

6 – 8일차



대관복 차림의 루이 14세, 이아생트 리고 공방

루이 14세

1638 – 1715

1654년 축성된 왕권신수의 군주는 베르사유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9일차 · 베르사유



대관복 차림의 샤를 10세, 프랑수아 제라르 원작

샤를 10세

1757 – 1836

1825년 랭스에서 축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마지막 축성식입니다.

2일차 · 랭스



여행 경로

랭스에서 베르사유까지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같은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앙부아즈는 투르에서 다녀오는 일정입니다(점선).

1 랭스
1일차 · 1박

2 파리
2 – 3일차 · 2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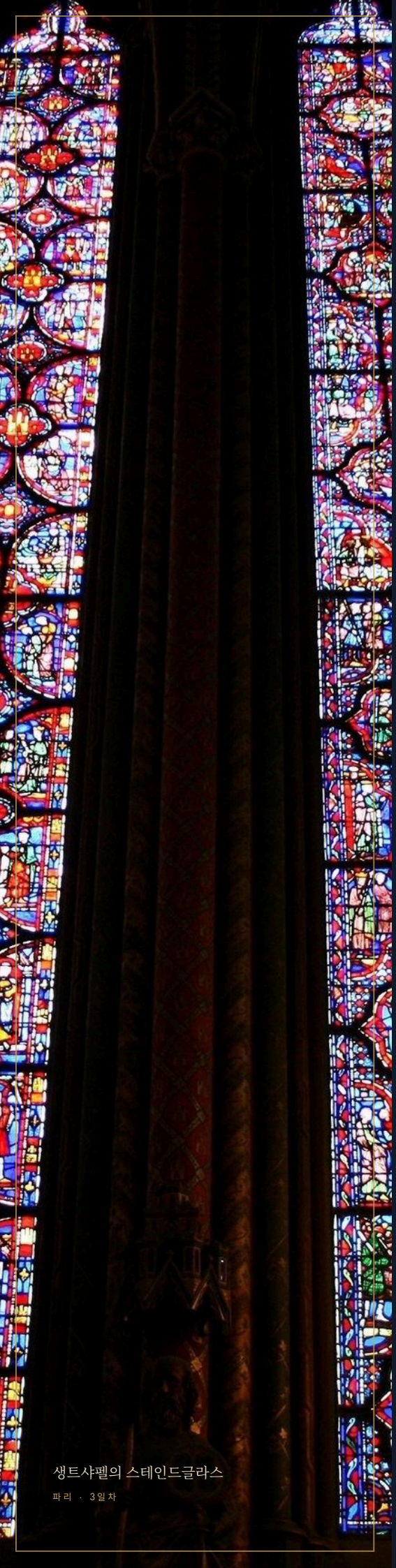
3 오를레앙
4일차 · 1박

4 투르
5 – 6일차 · 2박

5 퐁텐블로
7일차 · 1박

6 베르사유
8일차 · 1박

7 파리
9일차 · 1박



생트샤펠의 스테인드글라스

파리 · 3일차

여덟 개의 연대로 보는 천 년

클로비스의 세례에서 마지막 축성식까지

하느님께 받은 왕권의 위대한 순간들을, 이번 여정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500년경 — 클로비스와 레미지오

프랑크족의 왕이 랭스에서 레미지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144 — 쉬제르 수도원장

빛으로 가득한 생드니의 새 제단부가 고딕 예술의 탄생을 알립니다.

1190 — 필리프 2세 존엄왕

십자군 원정을 떠나기 전, 왕이 루브르 요새를 쌓게 합니다.

1248 — 성왕 루이

가시관을 모신 성유물함, 생트샤펠이 봉헌됩니다.

1429 — 잔 다르크

5월 8일 오를레앙이 해방되고, 7월 17일 샤를 7세가 랭스에서 축성됩니다.

1519 — 프랑수아 1세

샹보르 공사가 시작되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앙부아즈에서 숨을 거둡니다.

1682 — 루이 14세

궁정과 정부가 베르사유로 옮겨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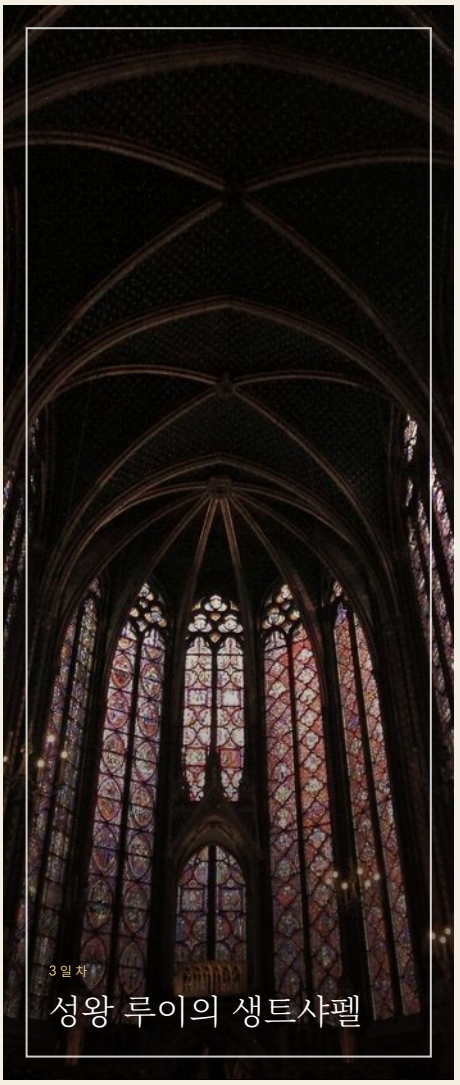
1825 — 샤를 10세

랭스에서 프랑스 왕의 마지막 축성식이 거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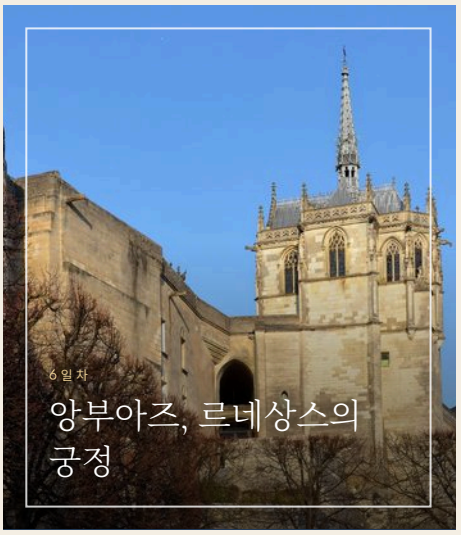
왕좌와 제대 사이,
여섯 곳의 명소

대성당과 예배당, 왕실 묘역과 궁전.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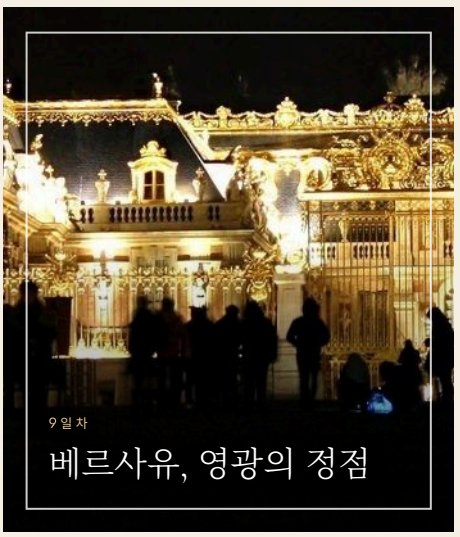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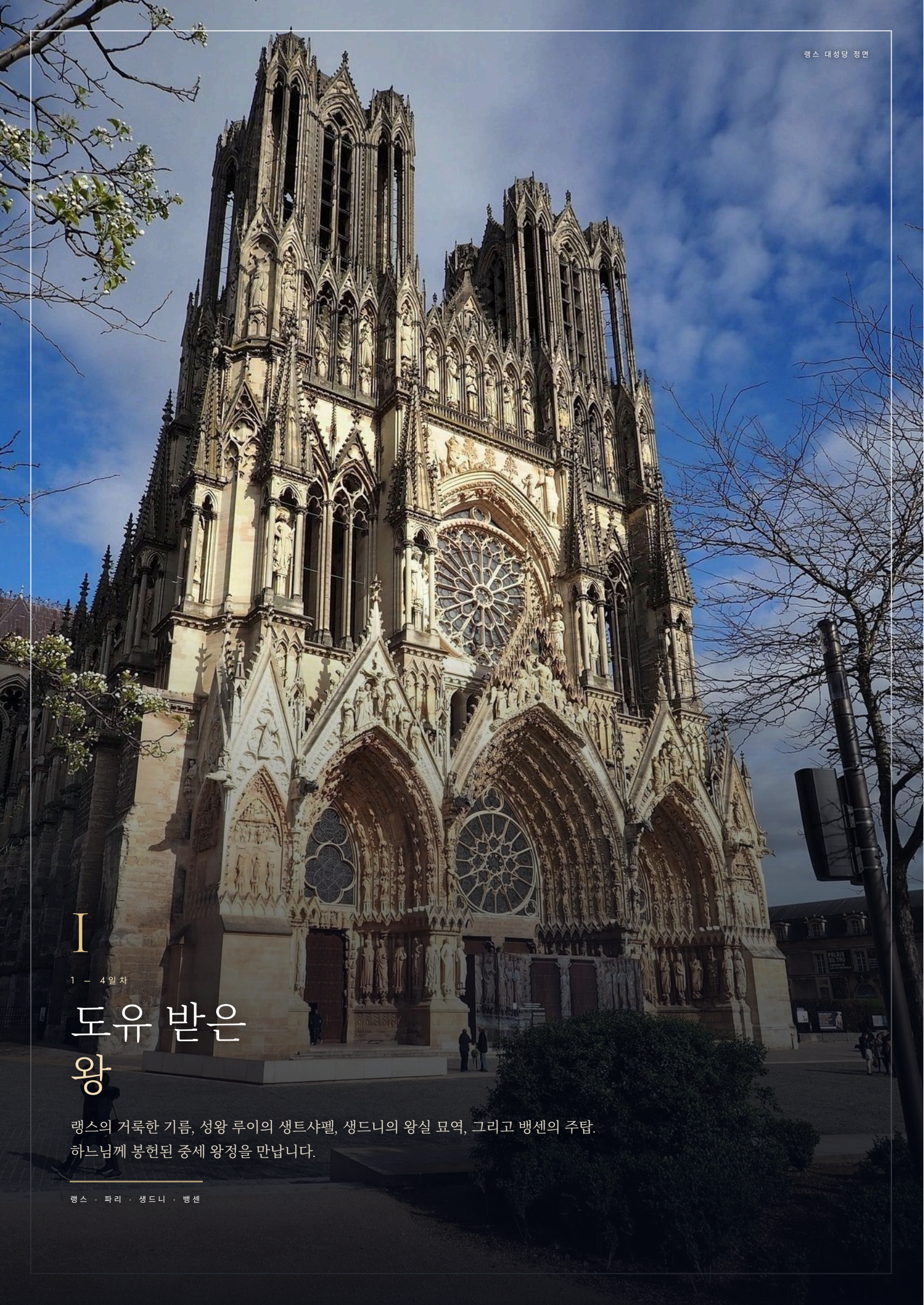












랭스 대성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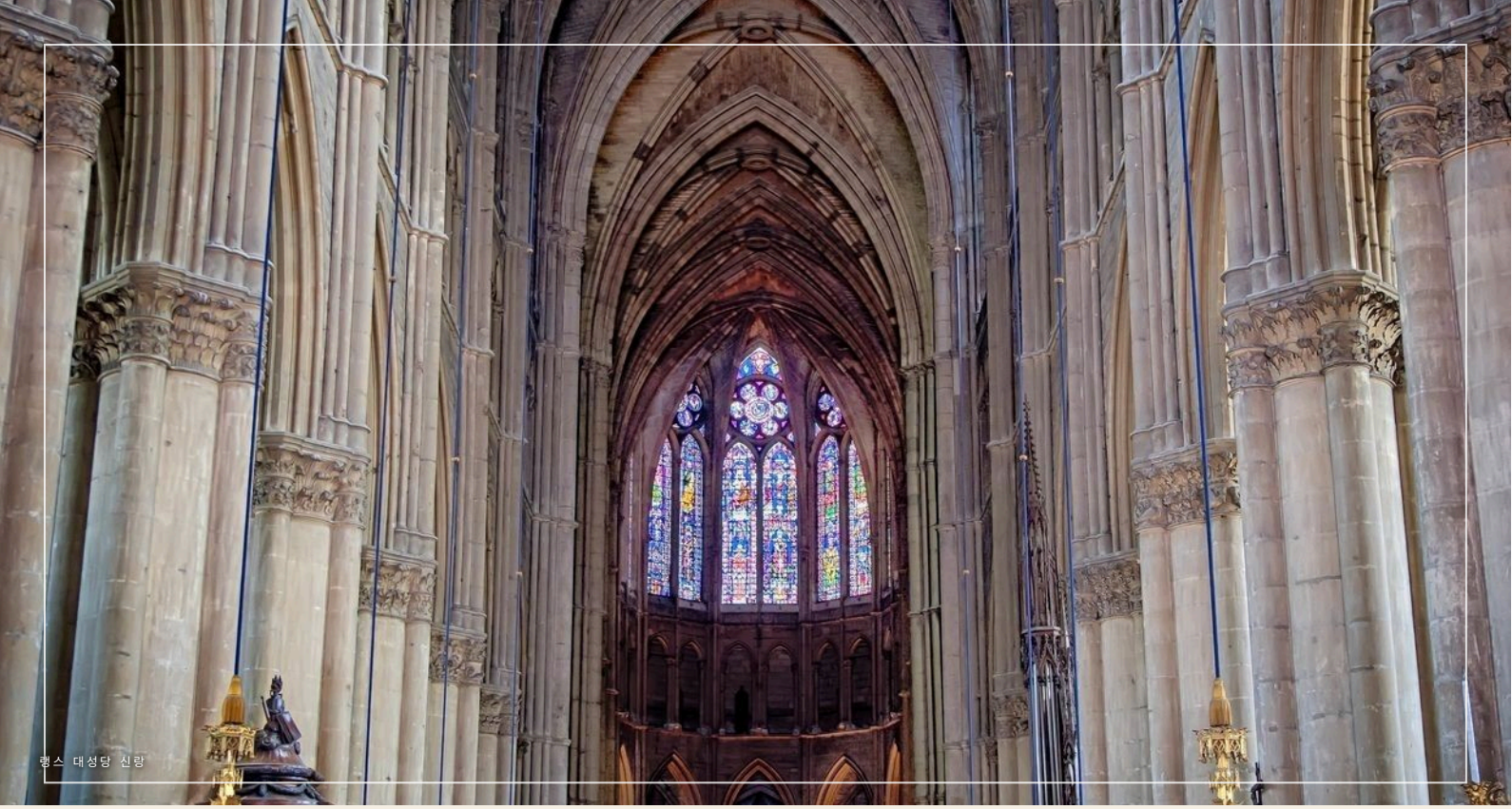
I

1 – 4일차

도유 받은 왕

랭스의 거룩한 기름, 성왕 루이의 생트샤펠, 생드니의 왕실 묘역, 그리고 뱅센의 주탑.
하느님께 봉헌된 중세 왕정을 만납니다.

랭스 · 파리 · 생드니 · 뱅센



랭스 대성당 신랑

1일 차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왕’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 랭스

오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일행 영접
오후	**전용 버스로 이동** 호텔 도착, 휴식
저녁	**환영 만찬** 랭스 숙박

공항에서 일행을 맞이한 뒤, 역사적인 축성의 도시 **랭스**로 향합니다. 긴 비행을 마친 만큼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에는 **환영 만찬**으로 여정의 문을 엽니다. 수 세기 동안 프랑스의 왕들은 이곳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았고, 랭스의 축성식은 그 사명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2,303

랭스 대성당을 장식한 조각상의 수입니다. 중세 조각이 가장 풍부하게 남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랭스 대성당 정문, 미소 짓는 천사와 성인들



랭스 대성당의 궁륭 아래

2 일 차

랭스, 왕들이 하느님의 도유를 받은 곳

랭스 – 파리

오전	랭스 가이드 투어 노트르담 대성당
오후	생레미 대성당 토 궁전(개관 시)
저녁	파리로 이동 파리 숙박



해 질 녘 랭스 대성당의 조각



생레미 대성당의 장미창



옛 대주교궁, 토 궁전

가이드와 함께 프랑스 왕 대부분이 축성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둘러봅니다. 1429년 잔 다르크가 지켜보는 가운데 축성된 **샤를 7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클로비스**에게 세례를 준 주교의 무덤을 모신 **생레미 대성당**을 찾습니다.

축성식 동안 왕이 머물던 옛 대주교 관저, **토 궁전**은 **재개관하는 경우에 한해** 그 보물을 공개합니다. 저녁에는 파리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소 짓는 천사

1240년경 정면 북쪽 정문에 새겨진 이 천사는 오늘날 랭스를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축성식,
그 장엄한 순서

축성식은 단순한 대관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례였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군주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식을 마친 왕은 연주창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왕이 그대를 만지고, 하느님께서 그대를 고치신다."



랭스 대성당의 대장미창

서약
1단계

왕은 교회를 보호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겠다고 맹세합니다.

도유
2단계

대주교가 거룩한 성유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로써 왕은 축성된 왕이 됩니다.

왕권의 표지
3단계

반지와 왕홀, 정의의 손을 받습니다. 왕의 직무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대관
4단계

왕국의 대귀족들이 받쳐 든 왕관이 왕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즉위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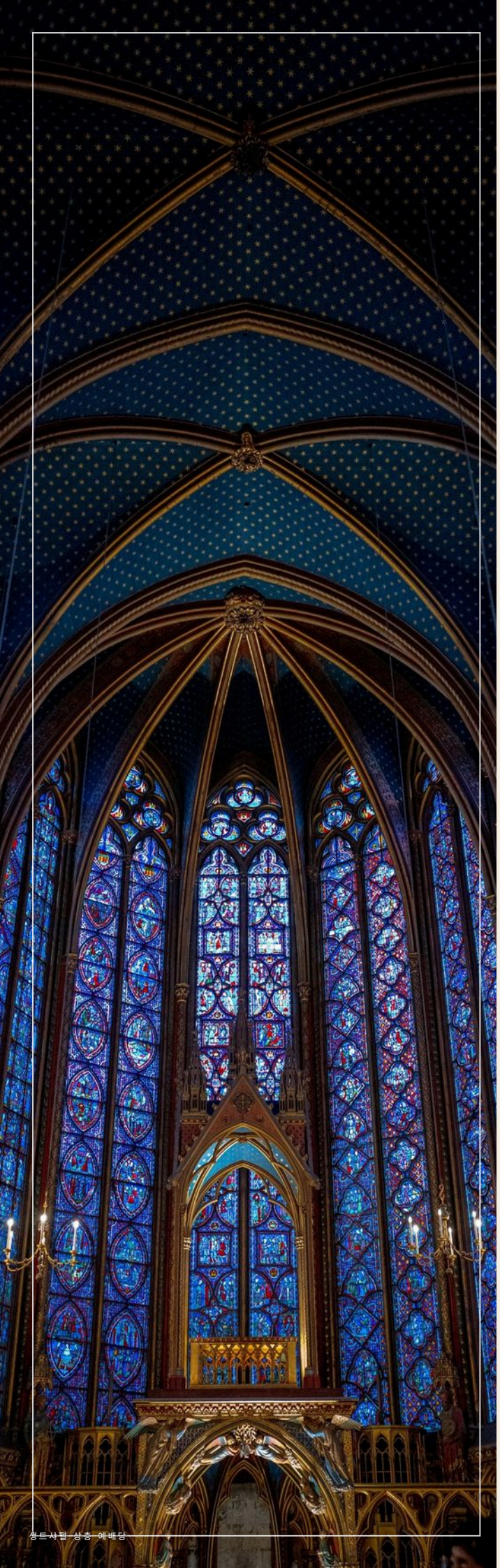
왕좌에 앉은 왕에게 환호가 울립니다. "Vivat rex in æternum!(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1027 – 1825
앙리 1세부터 샤를 10세까지, 거의 모든 왕이 랭스에서 축성되었습니다

9세기
힝크마르 대주교가 비둘기가 물어온 성유병의 전설을 전합니다

1793
프랑스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성유병이 파괴됩니다

1429. 7. 17
잔 다르크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샤를 7세가 축성됩니다



생트샤펠 상층 예배당

3일차 · 오전

파리,
성왕의 궁전

파리 종일

오전	가이드 투어 생트샤펠
오후	같은 가이드 투어 콩시에르주리
저녁	오후 루브르 파리 숙박

가이드와 함께 생트샤펠을 방문합니다. **루이 9세**가 **가시관**을 비롯한 주님 수난의 성유물을 모시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경 이야기에서 시작해 성유물이 파리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영적이면서 동시에 왕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어서 카페 왕조의 시테 궁전 가운데 남은 **콩시에르주리**를 찾습니다. **필리프 4세 미남왕** 때 새로 단장된 곳으로, 근위병의 방에는 중세 왕권의 기억이 서려 있고, 1793년 이곳에 갇혔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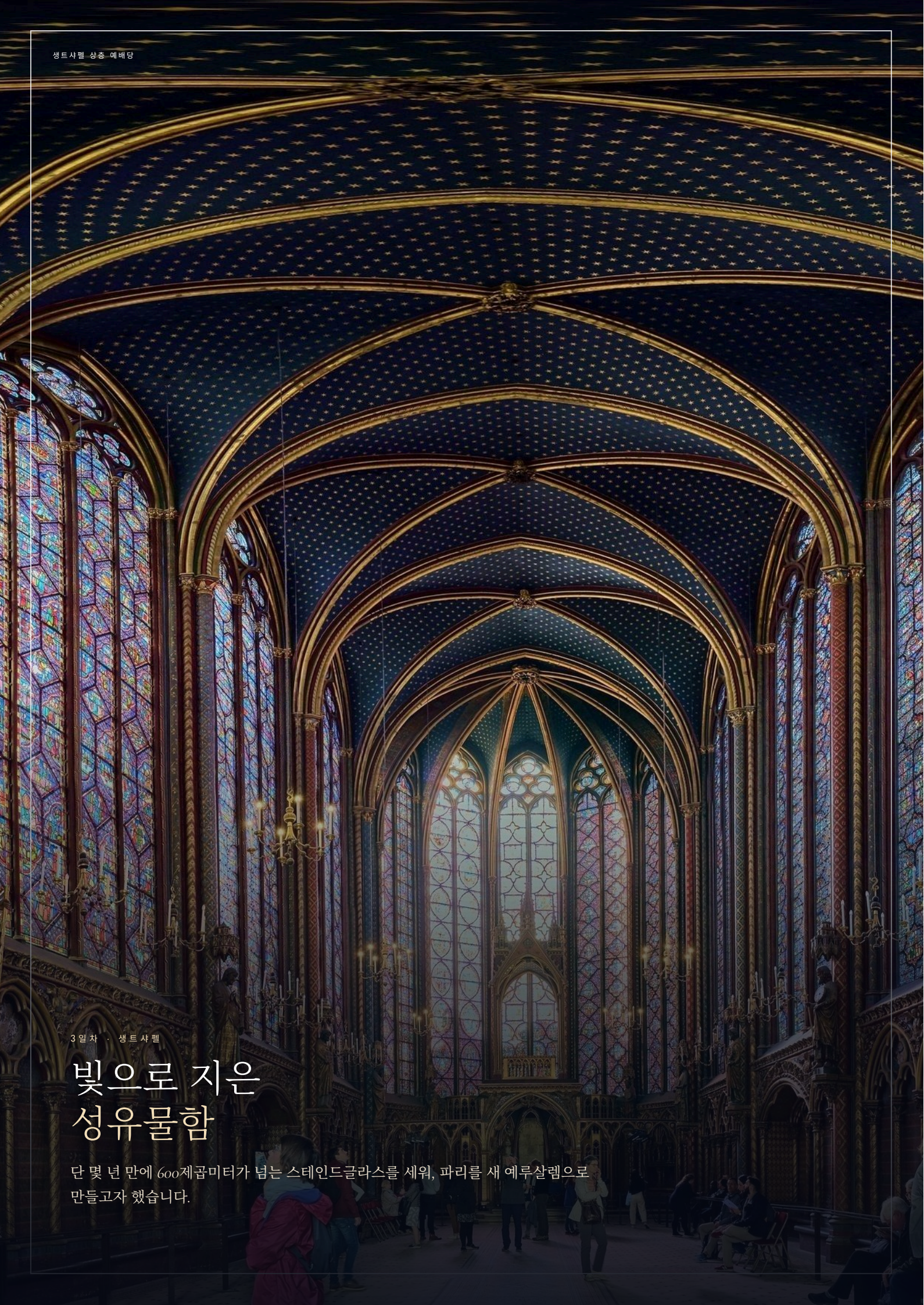


콩시에르주리, 근위병의 방

알고 계셨나요?

1248

4월 26일 생트샤펠이 봉헌됩니다. 성왕 루이가 가시관을 얻기 위해 치른 값은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훨씬 컸습니다.



3일차 · 생트샤펠

빛으로 지은 성유물함

단 몇 년 만에 600제곱미터가 넘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세워, 파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3일차 · 오후

루브르, 왕들의 궁전에서 걸작의 전당으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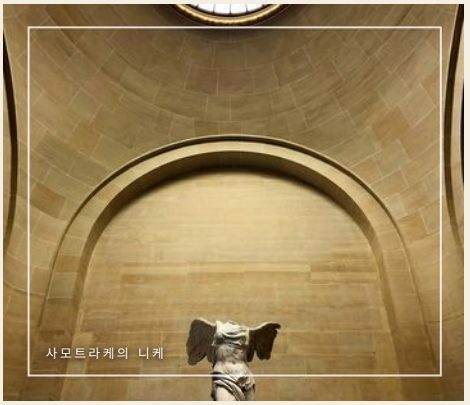
오전	오전 가이드 투어 생트샤펠과 콩시에르주리
오후	루브르 자유 관람 오후 내내
저녁	호텔 귀환 파리 2박째



해 질 녘 유리 피라미드와 나폴레옹 광장



필리프 2세 시대 중세 루브르의 해자



사모트라케의 니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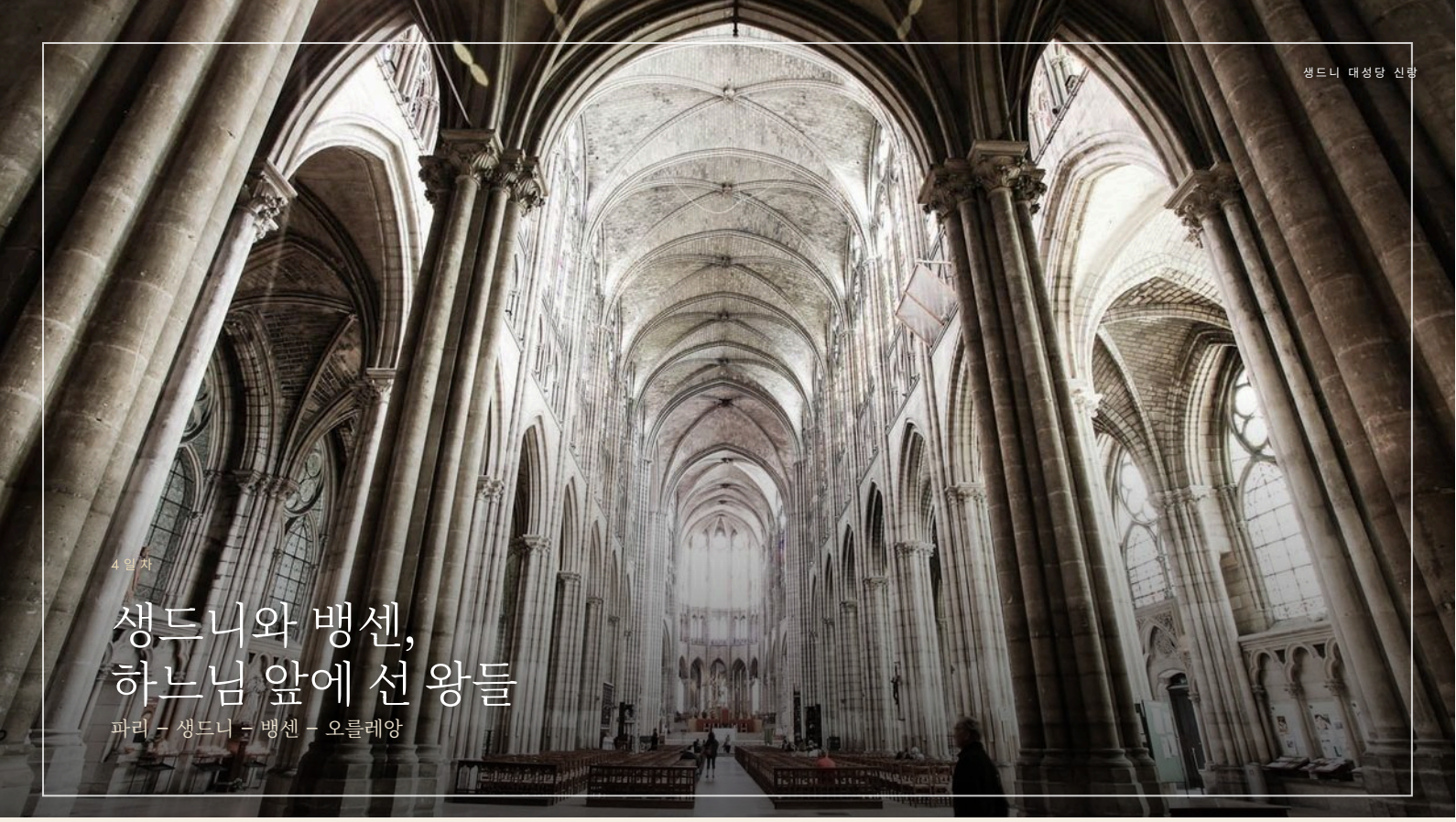
오후 시간은 모두 **루브르 박물관**에 할애합니다. 입장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관람**하며 회화와 조각, 고대 유물, 세계 미술의 걸작을 각자의 속도로 감상합니다.

오늘날 궁전 아래에는 **중세 루브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190년부터 **필리프 2세 존엄왕**이 쌓게 하고 **샤를 5세**가 왕의 거처로 바꾼 요새의 해자와 기초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샤를 5세

왕은 루브르에 약 천 권의 필사본을 갖춘 '서고'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원입니다.



생드니 대성당 신랑

4 일차

생드니와 뱅센, 하느님 앞에 선 왕들

파리 – 생드니 – 뱅센 – 오를레앙

오전
생드니 대성당
왕실 묘역 자유 관람

오후
뱅센 성
주탑과 생트샤펠

저녁
오를레앙으로 이동
오를레앙 숙박

생드니는 프랑스 왕들의 묘역입니다. 마흔이 넘는 왕과 왕비, 왕자의 와상과 무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이곳에서 군주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수도원은 **왕조의 기억**을 지켰습니다. **쉬제르** 수도원장이 고딕 예술을 꽃피운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오후에는 **샤를 5세**의 **뱅센 성**을 자유롭게 둘러봅니다. 주탑과 성벽, 생트샤펠이 어우러진 이 요새는 방어와 거처, 통치와 기도를 한데 품었습니다. 훗날의 화려한 궁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떡갈나무

전기 작가 주앵빌에 따르면, 성왕 루이는 뱅센 숲의 떡갈나무 아래 앉아 백성의 송사를 들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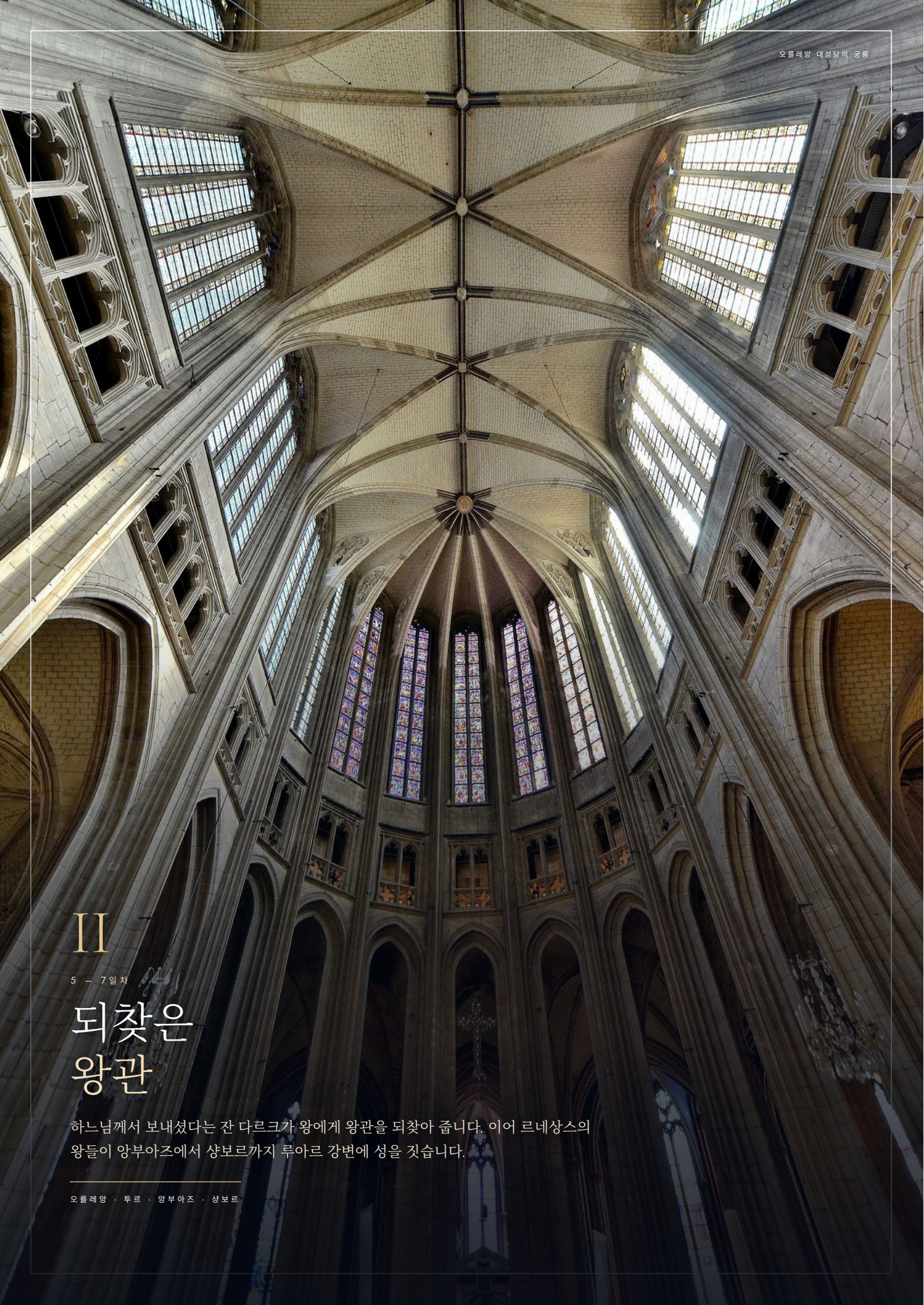
생드니 왕실 묘역의 왕과 왕비 와상



뱅센 성의 주탑



뱅센 생트샤펠



II

5 – 7일차

되찾은 왕관

하느님께서 보내셨다는 잔 다르크가 왕에게 왕관을 되찾아 줍니다. 이어 르네상스의 왕들이 앙부아즈에서 샹보르까지 루아르 강변에 성을 짓습니다.

오를레앙 · 투르 · 앙부아즈 · 샹보르



오를레앙 – 생트크루아 대성당

5일차

오를레앙, 잔 다르크와 샤를 7세의 운명

오를레앙 – 투르

오전	오를레앙 가이드 투어 생트크루아 대성당
오후	잔 다르크의 집 구시가지, 마르트루아 광장
저녁	투르로 이동 투르 숙박

가이드와 함께 생트크루아 대성당을 둘러보며 **백년전쟁**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1429년 잔 다르크는 오를레앙 해방에 힘을 보태고, 하느님께 받았다고 믿은 사명에 따라 왕세자 샤를을 랭스의 **축성식**으로 이끕니다.

그녀가 묵었던 집을 재현한 **잔 다르크의 집**(생가는 아닙니다)이 그 여정을 들려줍니다. 이어서 **마르트루아 광장**과 그녀를 기리는 장소들을 찾습니다. 비범한 **신앙의 확신**에 이끌린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1430년부터

오를레앙은 해마다 5월 초, 잔 다르크가 이룬 해방을 기념하는 '잔 다르크 축제'를 엽니다.



르네상스 왕들의 거처, 앙부아즈 왕궁

6 일 차

앙부아즈,
르네상스의 왕권

투르 – 앙부아즈 – 투르

오전	앙부아즈 왕궁 여유로운 자유 관람
오후	생튀베르 예배당 오후 투르 귀환
저녁	자유로운 저녁 투르 2박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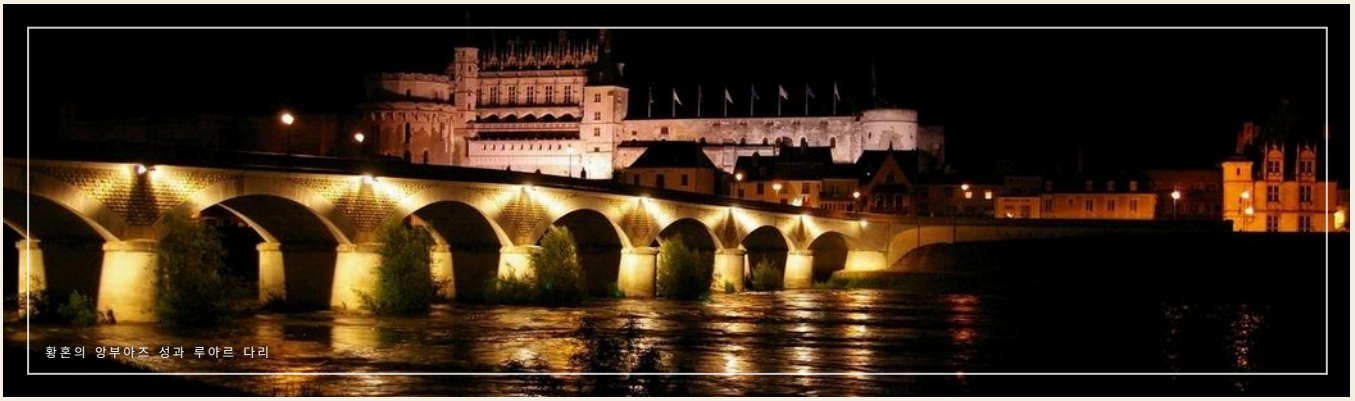
샤를 8세와 **루이 12세**, **프랑수아 1세**가 머문 **앙부아즈 왕궁**입니다. 역사적인 방들과 정원, 루아르강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이탈리아의 영향 아래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던 시대를 보여 줍니다.

정원 안의 **생튀베르 예배당**은 고딕 양식의 보석으로, 프랑수아 1세의 손님이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해로 알려진 유골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여유롭게 꾸민 하루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1498

앙부아즈에서 태어난 샤를 8세는 죄 드 폼(테니스의 원형) 경기를 보러 가던 길에 낮은 문틀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혼의 앙부아즈 성과 루아르 다리

7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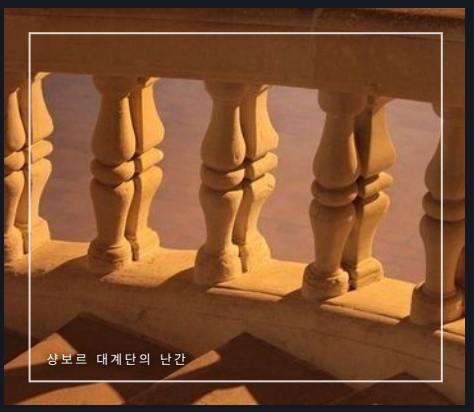
샹보르, 프랑수아 *1*세의 위엄과 야망

투르 – 샹보르 – 퐁텐블로

오전	샹보르 성 여유로운 자유 관람
오후	점심 식사 퐁텐블로로 이동
저녁	호텔 도착 퐁텐블로 숙박



물에 비친 샹보르



샹보르 대계단의 난간



샹보르 성 정면

1519년에 착공된 **샹보르**는 건축으로 **프랑수아 1세**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성의 한가운데에는 유명한 **이중 나선 계단**이 있고, 그 둘레로 왕의 거처와 테라스, 숲처럼 솟은 굴뚝들이 펼쳐집니다.

설계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배당**은 궁정 생활에서 신앙이 차지한 자리를 일깨워 줍니다.

알고 계셨나요?

426

개의 방, 282개의 벽난로, 77개의 계단. 그러나 프랑수아 1세가 이곳에 머문 기간은 모두 합쳐 몇 주에 불과했습니다.



퐁텐블로 성과 잉어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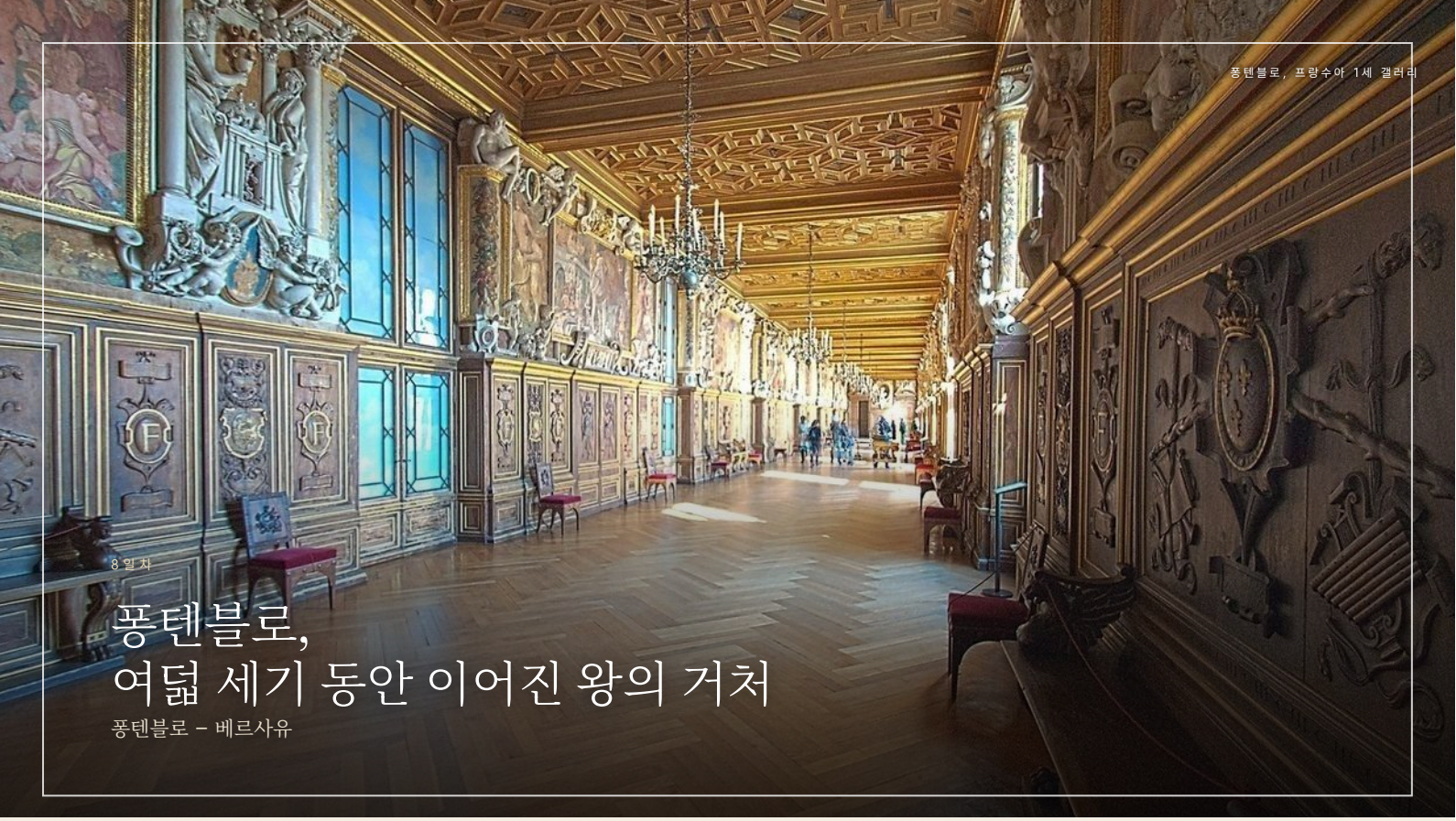
III

8 – 10일차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스린 왕

여덟 세기 동안 왕들의 거처였던 퐁텐블로, 그리고 왕권신수의 왕정이 절정에 이른 베르사유.

퐁텐블로 · 베르사유 · 파리



퐁텐블로, 프랑수아 1세 갤러리

8일차

퐁텐블로,
여덟 세기 동안 이어진 왕의 거처

퐁텐블로 – 베르사유

오전
퐁텐블로 성
프랑수아 1세 갤러리

오후
왕의 거처
삼위일체 경당

저녁
베르사유로 이동
베르사유 숙박

퐁텐블로 성을 여유롭게 자유 관람하며 중세의 기원부터 왕정과 제정 시대까지를 살펴봅니다.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꾸민 **프랑수아 1세 갤러리**에서 세련된 궁정 예술의 정수를 만납니다.

왕의 거처는 궁정의 위계를 비추고, **삼위일체 경당**은 관람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 예식이 지녔던 역할을 일깨워 줍니다.

알고 계셨나요?

“세기의 집”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된 나폴레옹은 퐁텐블로를 이렇게 부르며 “왕들의 진정한 거처”라고 했습니다.



퐁텐블로, 말굽 계단



퐁텐블로, 디아나 갤러리



퐁텐블로, 타원형 안뜰과 성



베르사유 궁전 정원 쪽 정면

9 일 차

베르사유,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스린 왕

베르사유 – 파리

오전	**베르사유 궁전** 대거처, 거울의 방
오후	**왕실 예배당과 정원** 파리로 이동
저녁	**센강 송별 만찬** 파리 숙박

베르사유 궁전을 자유롭게 관람합니다. **대거처**에서 궁정 예법과 권력의 연출을 엿보고, **루이 14세**의 치세를 그림으로 찬미한 **거울의 방**으로 이어집니다. 성왕 루이에게 봉헌된 **왕실 예배당**은 공개 구역에 따라 왕이 날마다 참례하던 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앙드레 르 노트르의 **정원**은 왕의 질서를 지평선까지 펼쳐 놓습니다. 저녁에는 불빛으로 물든 파리를 바라보며 센강 위에서 **미식 송별 만찬**을 즐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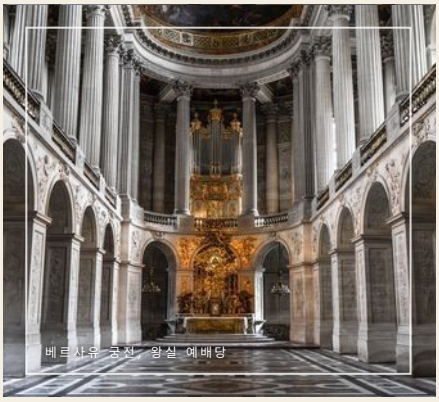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710

왕실 예배당이 봉헌됩니다. 부르봉 왕가의 시조이자 그리스도교 군주의 본보기인 성왕 루이에게 바쳐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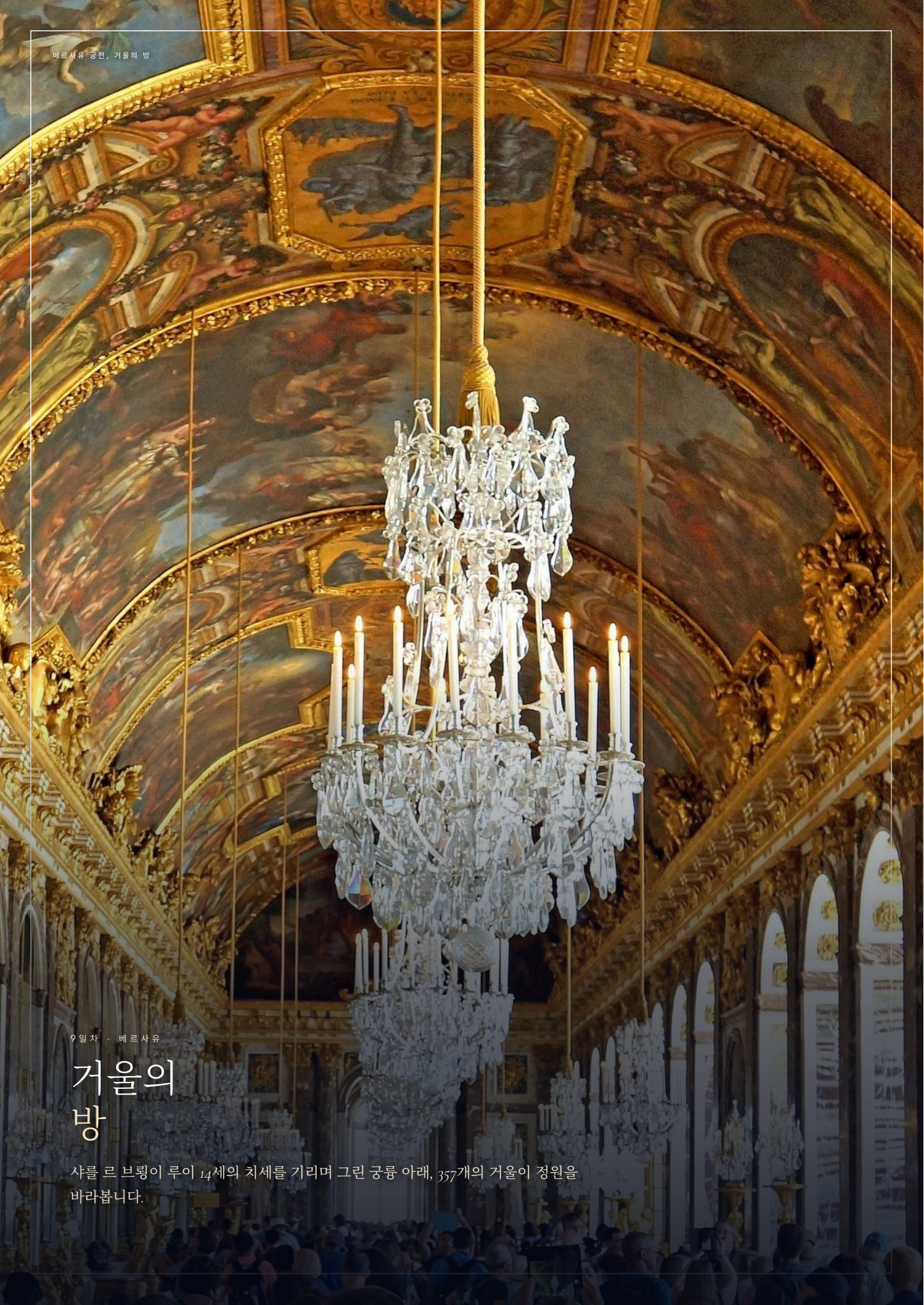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베르사유 궁전, 왕실 예배당



르 노트르의 정원과 대운하



9일차 · 베르사유

거울의 방

샤를 르 브룅이 루이 14세의 치세를 기리며 그린 궁륭 아래, 357개의 거울이 정원을 바라봅니다.

10일차

안녕,
프랑스

파리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오전	**호텔 조식** 파리에서의 마지막 시간
오후	**전용 차량 이동**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저녁	**귀국 항공편** 여행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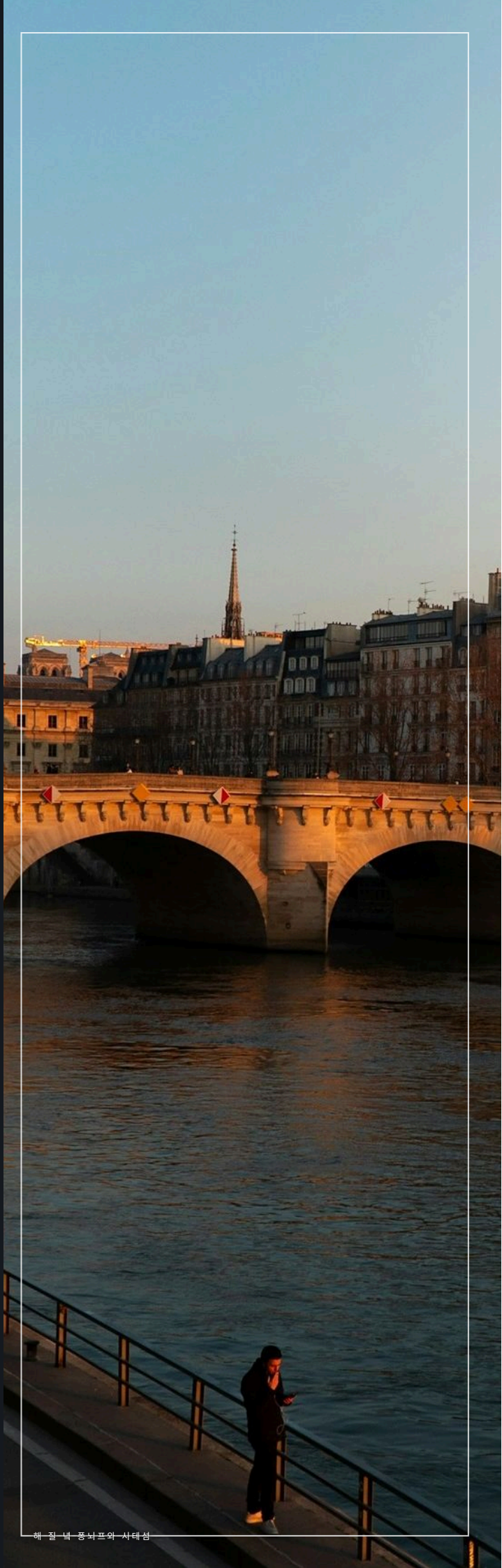
조식 후, **전용 차량**으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축성의 도시 **랭스**, **성왕 루이**, **잔 다르크**, **프랑수아 1세**, 그리고 **베르사유**의 찬란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Rex christianissimus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왕'. 수 세기 동안 프랑스 왕들이 지닌 이 칭호는 교회와 백성에 대한 의무를 늘 일깨웠습니다.



해 질 녘 퐁뇌프와 사테섬

함께하는 해설

세 번의 가이드 투어, 이해를 여는 세 개의 열쇠

공인 전문 가이드의 해설을 한국어 인솔자가 함께 전하며, 교회와 왕정, 그리고 프랑스 역사의 큰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풀어 드립니다.

I — 2일차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 생레미 대성당, 토 궁전(개관 시).

2 — 3일차

파리, 생트샤펠과 콩시에르주리

시테 궁전과 성왕 루이의 유산에 바치는 오전.

3 — 5일차

오를레앙

생트크루아 대성당, 잔 다르크의 집, 구시가지.

> 루브르, 생드니, 뱅센, 앙부아즈, 샹보르, 퐁텐블로, 베르사유 등 나머지 방문지는 각 명소의 관람 조건에 따라 자유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입장권에 포함된 해설 서비스는 가이드 투어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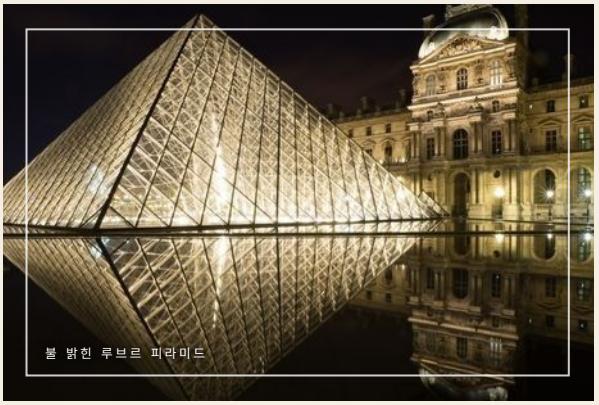
잊지 못할
네 번의 순간


랭스 대성당 정문

1일차 · 랭스

환영 만찬

축성의 도시에서 맞는 첫 저녁. 서로 인사를 나누고 왕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불 밝힌 루브르 피라미드

3일차 · 파리

루브르에서 보내는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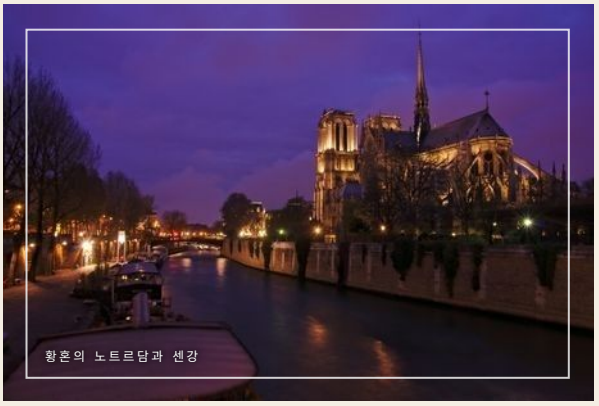
소장품을 자신의 속도로 감상하고, 필리프 2세 존엄왕이 쌓은 요새의 기초까지 만나는 시간입니다.


베르사유 정원

9일차 · 베르사유

르 노트르의 정원

계절마다 달라지는 장대한 원근 속에서, 풍경이 어떻게 왕의 위엄을 드러냈는지 느껴봅니다.


황혼의 노트르담과 센강

9일차 · 파리

센강 송별 만찬

불 밝힌 기념물들을 바라보며 강 위에서 즐기는 미식 만찬. 여정을 마무리하는 저녁입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여행

교통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영접
-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 도시, 방문지, 호텔 간 모든 이동
- 마지막 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송영

숙박

- 엄선한 프리미엄 호텔 9박
- 4성급, 일정에 따라 최대 5성급

식사

- 랭스 환영 만찬
- 센강 미식 송별 만찬

가이드 투어

- 랭스: 대성당, 생레미, 토 궁전(개관 시)
- 파리: 생트샤펠과 콩시에르주리
- 오를레앙: 대성당, 잔 다르크의 집, 구시가지

입장료

- 토 궁전(재개관 시)
- 생트샤펠과 콩시에르주리
- 루브르 박물관과 중세 유적
- 생드니 왕실 묘역, 뱅센 성
- 잔 다르크의 집
- 앙부아즈, 샹보르, 퐁텐블로, 베르사유 성

9박 숙박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랭스	파리	파리	오를레앙	투르	투르	퐁텐블로	베르사유	파리

국제선 항공권은 지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포함 범위, 운영 시간, 각 명소의 공개 구역은 여행 준비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사진: bortescristian / Flickr CC BY 2.0 · Carnet de Voyage d'Alex / Unsplash · nationalgalleryofart / Rawpixel CC0 · Wikimedia Commons CC BY-SA · Quentin Verwaerde / Flickr CC BY-ND 2.0 · barnesfoundation / Rawpixel CC0 · Rawpixel CC0 · thegetty / Rawpixel CC0 · The Met / Rawpixel CC0 · jafsegal (Thanks for the 4,5 million views) / Flickr CC BY 2.0 · tm-tm / Flickr CC BY-SA 2.0 · aditya karnad / Flickr CC BY 2.0 · Marie Thérèse Hébert & Jean Robert Thibault / Flickr CC BY-SA 2.0 · Morio60 / Flickr CC BY-SA 2.0 · milestonerides / Flickr CC BY-ND 2.0 · Dimitry B / Flickr CC BY 2.0 · stefanjurca / Flickr CC BY 2.0 · Andy Hay / Flickr CC BY 2.0 · TARLANT / Flickr CC BY-ND 2.0 · Mustang Joe / Flickr CC CC0 1.0 · GeS / Flickr CC BY 2.0 · ClélieMascaret / Flickr CC BY-SA 2.0 · boklm / Flickr CC CC0 1.0 · microbe / Flickr CC BY 2.0 · Sung Jin Cho / Unsplash Unsplash · szeke / Flickr CC BY-SA 2.0 · Gael Varoquaux / Flickr CC BY 2.0 · archer10 (Dennis) / Flickr CC BY-SA 2.0 · Jason Leung / Unsplash · chilangoco / Flickr CC BY-SA 2.0 · Gimli_36 / Flickr CC BY-SA 2.0 · frozenchipmunk / Flickr CC BY 2.0 · Patrick / Flickr CC BY-SA 2.0 · sybarite48 / Flickr CC BY 2.0 · TWojtowicz / Flickr CC BY-SA 2.0 · OliBac / Flickr CC BY 2.0 · Philippe Vieux-Jeanton / Flickr CC CC0 1.0 · TravelingInEurope / Flickr CC BY 2.0 · Eliza Passion Lectures / Flickr CC BY 2.0 · larrywkoester / Flickr CC BY 2.0 · @lain G / Flickr CC BY-SA 2.0 · Lucas.Klappas / Flickr CC BY 2.0 · Bastien Nvs / Unsplash · Guy Lejeune / Flickr CC BY-ND 2.0 · Meizhi Lang / Unsplash · v923z / Flickr CC BY 2.0.



십자가와 왕관

십자가와 왕관 사이, 천 년의 역사

프랑스의 왕들이 대성당의 궁륭 아래에서 하느님께 왕관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의 궁전은 권력의 자리이자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랭스에서 생트샤펠로, 생드니의 무덤에서 르네상스의 성들을 지나 찬란한 베르사유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정치, 예술, 그리고 군주들의 야망이 유럽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를 빚어냈습니다.

열흘 동안 천 년의 역사를 걸으며, 십자가와 왕관을 잇는 매혹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여행입니다.

해 질 녘 베르사유 대운하